

‘반복되는 음주운전’ 재범자 매년 수천명

광주·전남 지난 3년간 3만여건 육박 경찰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

광주와 전남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매년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도 수천여명씩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7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438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건, 2017년 141건, 2018년 262건으로 매년 100여건 이상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은 지난 3년간 무려 2만5,43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만176건, 2017년 7,952건, 2018년 7,357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7,000여명 이상이 2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3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는 3년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17명과 1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남도 2016년 2,125명, 2017년 1,763명, 2018년 1,665명이고, 이 중 7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피의자도 지난해에만 53명이나 된다.

실제 지난해 8월 31일 영광의 한 도로에서 이 모씨(39)가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상태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 모씨

(26)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밤 10시 45분께 북구 용봉IC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5km가량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총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3회)과 무면허(3회)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지자 광주·전남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운창호법 정착을 위해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단속시간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강화 등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음주운전자들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주운전 사고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살인행위다”며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 ‘운창호법’ 시행으로 음주면허정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취소기준은 0.08%로 낮아진다. 또 ‘투아웃 제도’로 음주운전에 한 차례 단속됐던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6:11 일몰 18:59
월출 08:00 월몰 21:46

장성	4~19	흑산도	8~12
담양	4~20	구례	7~21
화순	8~20	곡성	5~20
영광	5~17	완도	10~21
함평	5~20	강진	8~21
무안	5~18	장흥	9~21
영암	7~20	해남	6~19
진도	7~17	고흥	8~20
신안	7~18	보성	7~20

목포: 만조 04:03 16:10 / 간조 09:12 21:46
여수: 만조 10:51 23:17 / 간조 04:38 16:51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산불 발생 90% ‘부주의’

광주·전남 3년새 21명 사상·산림소실 40.45ha

지난 4일 강원 고성·속초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최근 3년간 27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10건 중 9건 이상이 쓰레기 소각·담뱃불 등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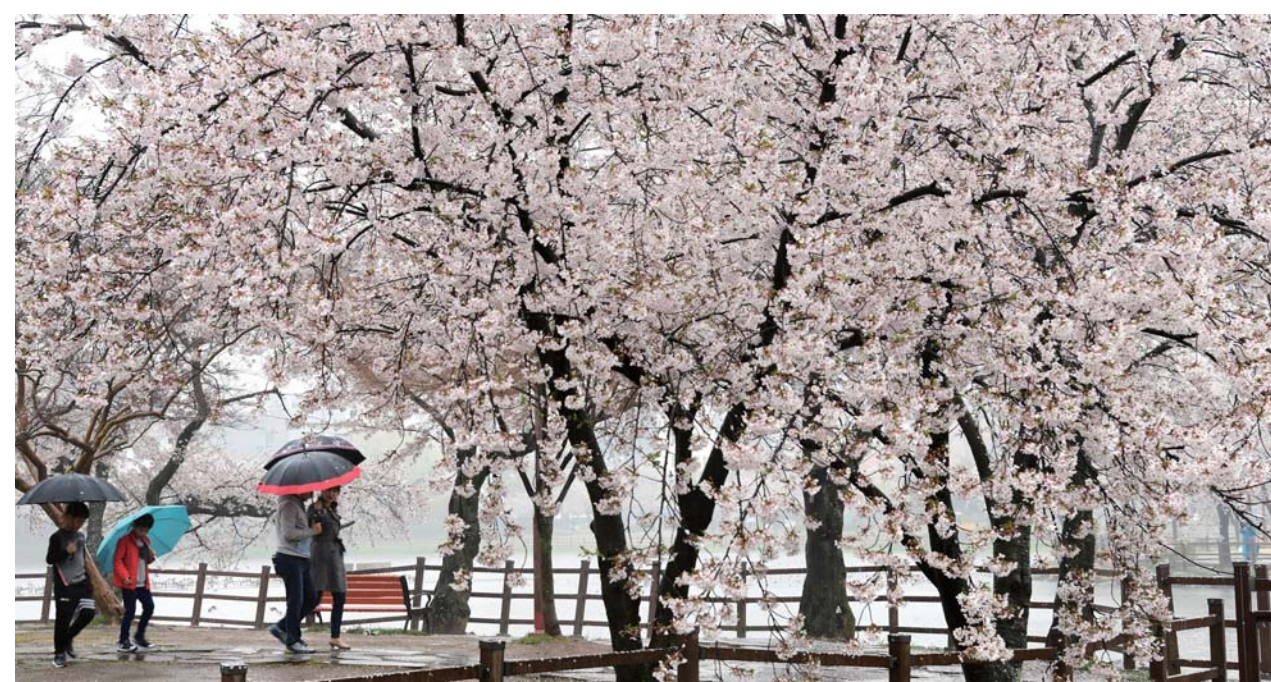
7일 광주시·전남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271건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또 입야 40.45ha가 소실돼 3억 7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277건 중 251건(90.61%)은 ‘부주의’로 인한 불이었다.

‘부주의’ 중에는 쓰레기 소각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배꽂초 46건, 논·밭 태우기 42건, 기타 부주의 25건, 불씨 방치 20건, 용접 부주의 3건 순이었다. 그 외 화재원인으로는 불장난·방화·전기적 요인이 각각 1건으로 확인됐다.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18건이었다.

계절별로는 겨울·봄철에 산불이 집중됐다. 산불 126건(45.48%)이 1~3월에 발생했다. 이어 4~6월 75건(27.07%), 7~9월 39건(14.07%), 10~12월 37건(13.35%) 순이었다. /황애란 기자



봄비에 촉촉히 젖은 벚꽃 봄비가 촉촉하게 내린 7일 오후 벚꽃 명소인 광주 유천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꽃비가 되어 떨어지는 벚꽃길을 걸으며 아쉬움을 달라고 있다. /김태규 기자

‘5·18 탄흔’ 옛 전남도청 현판 모형 만든다

도 “원판은 보관, 모형현판 추모사업 활용”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흔적이 남아 있는 옛 전남도청 현판을 그대로 보존 모형을 제작해 5·18 추모사업에 활용한다. 전남지역 5·18 사적지도 하반기에는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같은 내용

의 옛 전남도청 현판 활용방안과 5·18 전남 1호 사적지 지정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전남도청 5층 기록관에 보관 중인 옛 현판은 공공기록물(‘행정박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현판은 2017년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함몰흔적 7개 중

하나는 M1, 카빈 소총이나 권총탄과의 충격으로 생겼을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우송의 전남도의회 등은 현판을 복원 중인 옛 전남도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부식·훼손 등 위험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대신 원형 현판 크기와 재질을 본떠 만든 모형제작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5·18 전남 사적지 제1호 지정사업도 진행 중이다. /정근산 기자

5·18 희생자 유품 ‘영구보존’ 처리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유품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5·18 유품 보존처리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절차를 시작했다. 보존 처리되는 5·18 유품은 모두 177점으로 대부분 희생자가 지니고 있던 섬유류(양말·속옷 등)와 옷가지·동전 등이다. 사망자의 시신이나 관을 덮었던 태극기도 포함됐다.

유품들은 1997년 희생자들의 유해를 구묘역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로 이장할 때 발굴됐다. 유품이 2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만큼 보존처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과 측정, 이미지 작업 등 기록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10대 5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15)군 등 고등학생 1학년 친구 사이인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은 지난 4일 밤 10시 32분께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원 가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여학생이 피해자를 조건만남 하기로 하고 채팅 앱을 통해 만나 모텔로 유인한 뒤, A군 등 4명이 모텔로 들어가 협박, 금품을 빼앗는 수범이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긴 이들 지문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았다. /이나라 기자

오늘 광주서 전두환씨 회고록 민·형사 재판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 기소된 전두환씨(88)의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을 다룬 민사재판이 8일 광주법원에서 각각 열린다.

피고인 전씨는 이날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판사는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및 각종 자료에 대해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광민 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출입,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DK-301] 강력 접착 도막 방수제
[DK-302] 초강력 다목적 혼화용 방수제
[DK-303] 녹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4] 회색 접착 코팅 방수제
[DK-305] 드림데칼 3
[DK-306] 탑코팅 수용성 투명 방수제
[DK-307] 균열 보수제
[DK-308] 황토리
[DK-1000] 드림탄
[DK-2000] 드림콘
[DK-3000] 슈퍼 드림을 골드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